
새시대 교수법 166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조벽

영웅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단지 5분 정도 더 오래 용감할 뿐이다. 에머슨

난처한 경우 2: 강의실 늦게 들어갔을 때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멋진 문장 하나를 완성하고 고개를 들던 순간 갑자기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강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을 쓰고 있던 중이어서 정신을 집중하는 바람에 시간가는 줄 깜빡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의실로 후닥닥 뛰다시피 서둘러 갔습니다만 5분이나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지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고 교수님께서 학생들보다 항상 2~3분씩 미리 강의실에 가 있는 바람에 학생들도 대체로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날 역시 학생들이 다 와 있습니다. 허둥지둥 들어온 교수님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조용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려고 강의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모두 교수님을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시간 지킬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혹시 위선자같이 보이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교수님께서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1) 아무 일이 없듯이 태연하게 강의를 시작할까? 그러나 그리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슬쩍 넘어가자니 뭔가 떳떳치 못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선이 학생들의 눈을 피하여 자꾸 땅바닥으로 향하거나 허공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약간 더듬거리지기까지 합니다.

(2) 지각해서 미안하다고 말할까? 한 학기 내내 학생들보다 먼저 강의실로 가서 준비를 끝내고 강의를 정시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번 늦게 지각한 것 가지고 사과하기에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3)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으니... “내가 한번 늦게 왔더니 강의실이 좀 소란하군! 예습은 해왔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까지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 낮짝이 두꺼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4) 지각한 것을 인정하되 뽕뽕 돌려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까? “아, 내가 좀

늦게 왔는데도 학생들이 다 와 있군요. 다행히 오늘 강의는 사실 한 시간이 다 필요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참 이상도 하지.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보면...” 쿵! 신뢰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5) 왜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까? 어쩔 수없이 지각하게 된 이유를 찾으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구차한 핑계같이 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지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의를 지각하게 된 이유는 강의가 교수님의 일 우선순위에서 넘어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약간의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연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아, 내가 5분 늦었군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어요.”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의 실수는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편집 코너>

연수에 참석하셨던 교수님들의 요청으로 성신여대 교수님들 전원 “새시대 교수법” 구독자가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 화 : 미 국 (9 0 6) 4 8 7 - 2 8 9 1 팩 스 : (9 0 6) 4 8 7 - 2 8
